

전남도민의 노래

명랑하고 씩씩하게

이
이
온
상
섭
작곡
작곡
김정수
편곡

노령의는 큰 산 줄기 타고 내려지와
거례는 고난 속에 한 덩이 지와
그림같은 산파들에 열린 - 고을 들니
세기에는 어둠에서 밝아 - 오나 니
오랜전통빛 난문화 실린 그대로 여기서나 고자란 정든내 고장 봉치
희망의아 침햇빛 한 아름안고 나가자새 역사의 뚜렷한 길로
자세우자 힘차게 살자 이이 땅땅
봉치자 - 세우자
온물려받은 우우 리리의의 낙낙 원원
온길이길이 물려받은 - 길이길이